



일시/장소: 2019. 11. 15.(금) 14:00 광주광역시청 무등홀

광주시는 광주에 맞는 노사상생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토론회'를 15일 오후 개최했다. '노동현장 의견수렴 정책 토론회'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아래 "현장에서 '듣고', '묻고', '만드는' 광주형 노동정책"을 주제로 노동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해 현장의 제언들을 직접 발표하고 경청하며 맞춤형 해법을 공유했다. /광주시 제공

# 市, 노사상생도시 실효적 정책 발굴 박차

## 시청서 노동현장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개최

### 노동현장 다양한 의견 청취·맞춤형 정책 및 해법 모색 "광주시 노사상생도시 정책 혁신이자 생존전략" 평가

광주광역시시는 광주에 맞는 노사상생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토론회'를 15일 오후 개최했다.

'노동현장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아래 "현장에서 '듣고', '묻고', '만드는' 광주형 노동정책"을 주제로 노동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해 현장의 제언들을 직접

발표하고 경청하며 맞춤형 해법을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석호 전태일 재단 사업위원장은 '광주의 생존전략 광주의 혁신전략, 노사상생도시'를 주제로 그간 광주시의 활동, 노사상생도시 평가, 노, 사, 민, 정이 고민해야 할 키워드, 상생도시 구상과 기본방향 등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다른 지자체들이 노동으로만 한정해서 노사상생도시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는 노와 사 공동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생존전략이라고 혁신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본격 토론회에서는 광주지역 노동현장에서 직접 참여한 패널들이 각각 노사상생도시 광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상호 경청함으로써 실효적인 정책사업 발굴에 나섰다.

김경호 시 노동협력관은 "앞으로도 산업별 노동현장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된 의견은 시 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jsh9668@

## 전남도,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18일 담양·19일 목포·22일 여수 등 권역별 세무공무원 교육·상담

전라남도는 18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중소기업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기업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의 현장 중심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경기 불황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지방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해결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세 신고 납부 요령, 기업에 지원되는 감면사항, 불복제도, 세무조사 추정사례 등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설명한다. 이어 세무사

와도, 시군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개별 기업과 1대1 상담을 한다.

또한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해설집을 별도 제작해 행사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도 지방세 2조 원시대를 여는 데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준 기업인 덕택"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한발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22개 시군과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우리기업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은 권역별로 19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22일 여수 전남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광주 한과배기' 푸드스타트업 공모전 대상

전국서 5개 분야 44개 작품 출품... 11개 작품 선정

광주광역시가 식품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식품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광주 푸드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광주지역 청년바른식품에서 출품한 '광주 한과배기(전통한과 복원 및 디저트류 한과·사진)'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2019 광주미래식품전'의 일환으로, 식품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44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5개 분야(농수산물 및 식품, 푸드테크, 식품기자재, 6차산업, 기타)에서 20개 팀이 선발됐다.

- 이어 광주미래식품전 기간 현장 3

차 심사(UCC사업 아이템, 독창성 및 판넬의 디자인, 도식화 등)를 통해 1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 한과배기'는 광주지역만의 전통한과를 복원하고 디지털화 된 한과를 카페형태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한식 디저트' 스타트업 기업이다.

기존 한과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고 세련된 감성으로 세계에 한식 디저트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수현 기자 jsh9668@



전남복지재단은 지난 13일엔 장성 청렴선진유적지를 탐방하고, 앞서 12일엔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사회복지회관 일대에서 도민 및 회관 이용자,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 전남복지재단, 청렴도 높이기 '온 힘'

청렴리더그룹 운영·선진 유적지 탐방·청렴 캠페인 등

전남복지재단이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중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복지재단은 올 초 청렴리더그룹을 구성, 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3일엔 장성 청렴선진유적지를 탐방하고, 앞서 12일엔 재단 임직원이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전라

남도사회복지회관 일대에서 도민 및 회관 이용자,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캠페인, 리더그룹 활동, 청렴교육,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계속 추진해 투명하고 깨끗한 전남복지재단 이미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道,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 예방 나서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합동

전라남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5일간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무원 4개 반 49명과 특별사법경찰관이 권역별로 실시한다. 소주방, 호프집 등 400여 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유해가 밀집지역 등 퇴폐·변태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 단속을 한다.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휴흥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 휴흥업소의 청소년 고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전문

신용불량을 정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빚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박연휘 법무사는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총 3,000건 이상을 처리 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중앙로 114(상무랜드피아 312호)  
T:010-3643-0590 사무실:062)383-5118  
FAX:062)443-0102 E-mail:same2866@daum.net

법무사 박연휘 사무소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 국토의 실핏줄 생강을 살립니다

